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에 대하여*

이희영**

차 례

1. 서론
2.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
 - 1) 求官活動 時期
 - 2) 官人活動 時期
 - 3) 致仕以後 時期
3.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이규보가, 전 생애에 걸쳐, 도연명을 어떻게 인식하여 삶의 지향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생애는 ‘구관 활동 시기·관인 활동 시기·치사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도연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규보와 도연명은 한소(寒素) 사인(士人)이라는 출신의 유사성이 있으며, 문벌과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한계가 명확하였다. 또한 고려는 무신들에 의하여 조정이 움직이는 시대였고, 췌·宋 교체기는 군벌 세력의 등장으로 황제가 시해당하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양자(兩者)는 신분과 시대의 유사성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天性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규보는 도연명을 삶의 전형으로 삼아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연명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다.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부단히 구관(求官)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도연명이 그랬던 것처럼 출사의 명분으로 ‘口腹’의 문제를 거론하고, ‘歸田園’은 조정에 진출하여 관인으로서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명분은 구관의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연명의 본전(本傳)과 시집(詩集)을 읽은 뒤, 생각을 정리하여 시와 찬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졸직한 천성을 유지하고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조교수

되새기기 위하여 도연명을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자세는名利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이규보는 1237년 겨울 4번의 <걸퇴표(乞退表)>를 올리고 운허를 받아 치사(致仕)한다. 그는 치사한 이후에 ‘南軒’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南軒居士’ 혹은 ‘南軒長老’라고 부르며 생활한다. 그는 ‘남헌’이라는 자신만의 전원에서, ‘孤拙’의 천성을 유지하며 ‘守拙’하고자 하였다.

이규보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拙’이라고 할 수 있으며, ‘拙直’과 ‘孤拙’이라는 말로 자신의 천성과 삶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도연명이 추구한 삶의 자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세 문인에게 도연명은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규보가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가 삶의 전환점마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도연명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연명의 삶에 다가서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핵심어 : 이규보(李奎報), 도연명(陶淵明), 한시(漢詩), 졸직(拙直), 전원(田園)

1. 서론

본고는 이규보(1168~1241)가, 전 생애에 걸쳐, 도연명을 어떻게 인식하여 삶의 지향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시대 문인의 도연명에 대한 관심은 『문선(文選)』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문선』은 100여 편의 도연명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송나라는 선종조(宣宗朝) 신미년(1091년) 6월에 사신으로 왔던 이자의 등을 통하여 서적 목록을 작성하여 보낸다. 송나라는 고려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판본이 좋으니, 필사하여 보내라는 요구를 한다.¹⁾ 이 서적 목록에 당나라 공손라(公孫羅)가 주석한 소명태자(昭明太子) 『文選』을 포함하고 있다. 『文選』의 존재는 도연명 시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²⁾ 이규보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도연명의 문학을 접했던 것으로 보

1) 鄭維祉 등, 『고려사』10권, “丙午, 李資義等還自宋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書所求書目錄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中略)… 公孫羅文選 …(下略)….”

2) 고구려부터 고려 시대까지 『文選』의 전래에 대해서는 김성기(『高麗中期 文人의 挑淵明 受

인다.

고려 시대는 1170년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무신의 난을 기점으로 많은 역사적 변화를 맞았다. 조정에서는 문신의 자리를 무신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존의 가문과 문벌을 중시했던 귀족은 대부분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당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을 잊고 산수(山水) 안에서 청담을 즐기는 풍조가 있었으며, 죽림고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사대부 계층 중에서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에 오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정의 유력자나 동년(同年)에게 구관시(求官詩)를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³⁾

사대부 계층은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그 뒤에는 경세제민의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이규보는 황려현을 근거로 하는 지방 사대부 출신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오랜 세월 관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는 1207년 관인으로 조정에서 일할 때까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응시하면서 성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사 인물 중에서 하나의 전형을 찾아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도연명을 삶의 전형으로 삼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관인으로 활동하는 시기 및 致仕한 이후에도 삶의 전환점마다 도연명을 되새기며 삶의 전형으로 삼고자 하였다.

도연명은 균벌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태어났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는 불의(不義)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고자 전원으로 돌아가 삶을 유

睿에 대한 考察, 『울산어문논집』3, 1987.)의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3) 고려시대 무인 정권기는 추천으로 관리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인으로 생활하려는 사람은 排律을 지어 올렸다. 여기에는 자신을 추천할 사람에 대한 頌揚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시 안에 진술하게 드러내었다. 이규보 역시 『呈張侍郎自牧一百韻』(『동국이상국전집』 권1, 『한국문집총간』 권1, 297~298쪽.)의 작품을 시작으로 1197년과 1198년에 조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율의 구관시를 지어 올렸다. 이에 관해서는 즐고, 『李奎報 排律研究(1) : 求官活動 時期를 中心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40,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8.)와 즐고, 『李奎報 排律研究(2) : 官人活動 時期를 中心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48,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20.)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지하였다. 도연명과 관련하여 중국문학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다양하다. 그의 생졸년과 가계, 진·송(晉·宋)교체기 한소(寒素) 사인(士人)으로서의 삶, 곤궁(固窮)의 절조(節操), 전원문학의 창시, 농경 및 생사와 관련한 주제를 문학으로 드러낸 점 등 여러 분야를 분석하였다.⁴⁾ 여기에서는 도연명이 문인으로서 동아시아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여, 후대 문인들이 출사와 은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규보의 도연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자연 인식의 한 측면에 주목한 연구가 있으며,⁵⁾ 자연관 안에서 귀거래 의식에 주목한 연구,⁶⁾ 청·장년기 도연명의 언급 빈도가 높은 것에 주목한 연구,⁷⁾ 무하유(無何有) 지향의 입장에서 도연명 문학을 수용했다고 보는 연구,⁸⁾ 중국 문학과의 영향 관계에서 도연명 지향에 대한 연구⁹⁾ 등이 있다. 한편으로 고려 시대 문인들이 도연명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주목하여 시대 전반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¹⁰⁾ 여기에서는 이규보의 도연명 지향에 대해 주목하고, ‘귀거래’를 주제로 개별 작품을 분석하였다. 박미자의 논의는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문학의 시선에서 이규보와 도연명의 시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¹¹⁾ 이규보의 도연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규보

4)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斯波六郎, 『중국문학 속의 고독감』, 윤수영 역, 동문선, 1992.; 川合康三, 『중국의 자전문학』, 심경호 역, 소명출판, 2002.; 安藤信廣·堀池信夫·大上正美 편저, 『陶淵明 詩と酒と田園』, 東方書店, 2006.; 小尾郊一, 『중국의 은둔 사상』, 윤수영 역,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김창환,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을유문화사, 2009.; 錢志熙, 『도연명전』, 이규일 역, 글항아리, 2015.; 袁行沛, 『도연명 연구』, 박종혁 등 공역, 학고방, 2017.; 李錦全, 『도잠평전』, 장세후 역, 연암서가, 2020.; 張煒, 『도연명의 유산』, 조성환 역, 파람북, 2021.

5) 박성규, 「李奎報 漢詩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2.

6) 신용호, 『李奎報의 意識世界와 文學論 研究』, 국학자료원, 1990.

7) 이동철, 『白雲 李奎報 詩의 研究』, 국학자료원, 1994.

8) 서양명, 「고려 무신정권시기 도연명 문학의 수용양상 연구 : 이인로, 이규보, 진화를 중심으로」, 이주대 석사논문, 2018.

9) 김진영, 『이규보 문학연구』, 집문당, 1984.

10) 朴美子, 『韓國高麗時代における陶淵明觀』, 百濟社, 2000.

11) 김주순, 「李奎報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35, 동방한문학회, 2008.

전 생애 걸친 도연명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소략한 측면이 있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에 대하여 구관활동(求官活動)과 관인활동(官人活動), 치사이후(致仕以後) 시기로 구분한 뒤 국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규보가 삶의 국면마다 도연명을 기억하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²⁾

2.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

1) 求官活動 時期

이규보(1168~1241)는 1207년 본격적으로 관인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구관활동에 전념한다. 그는 1190년 2차 시험인 예부시(禮部試)에 동진사(同進士)로 합격하면서 관인을 위한 첫걸음을 딛는다. 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은 1191년 8월에 부친의 죽음이었으며, 이규보는 천마산(天摩山)에 우거하면서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자칭하며 삶의 한 방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백운거사는 선생의 自號이니, 그 이름을 숨기고 그의 호를 보여준 것이다. 그가 自號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의 <白雲語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집은 자주 식량이 없어서 끼니를 이을 수 없었으나 居士는 스스로 유쾌한 듯이 지냈다. 성품은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어서 六舍와 天地를 좁다고 여겼다. 초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즐겁게 나아가서는 이내 취하여 돌아오니, 어찌 옛날 도연명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스스로 달랬으니, 이것은 그 기록이다. 居士는 취하여 시를 읊으며, 스스로 傳과 贊을 지었으니, 贊은 다음과 같다. ‘뜻은 본래 천지사방 밖에 있으니, 하늘과 땅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태고의

12) 본고에서의 원문에 대한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한 『국역 동국이상국집』(1980)을 참고하였다. 원문은 『한국문집총간』1(민족문화추진회, 1988)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조선고서간행회에서 발행한 『동국이상국집』상(1913)을 참고하였다. 도연명 시문의 원문은 逮欽이 校注한 『陶淵明集』(中華書局, 2007)을 참고하였다.

순수한 元氣와 함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노닐 것이다.¹³⁾

이규보는 ‘백운거사’라는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백운거사는 천지사방을 좁게 여길 정도의 호탕한 기개를 지니고 있으며, 가난한 삶에 대하여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의 전형을 통하여 형성하는데, 바로 도연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연명은 자전(自傳)인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통하여 스스로 즐기는 이상적인 삶에 대하여 말한다. 五柳先生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마음속에서 이해득실을 잊다[忘懷得失]’와 경제적인 가난함에 대하여 편안하게 여기고 개의치 않은 삶의 태도이다.¹⁴⁾ <오류선생전>의 찬(贊)에서는 검루(黔婁)의 말을 인용하여 가난하고 낮은 처지[貧賤]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부귀에 힘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삶을 살아간 오류선생은 ‘전설상 태평성대 제왕이었던 무희씨·갈천씨(無懷氏·葛天氏) 시기에 살았던 백성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한다.¹⁶⁾ 이규보가 <백운거사전>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삶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운거사전>의 ‘도연명의 무리[陶淵明之徒]’라는 거사에 대한 평은, 이규보가 평소 도연명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의지를 우회하여 드러낸

13) 이규보, <白雲居士傳>, 『동국이상국전집』 권20, 『한국문집총간』 권1, 505쪽, “白雲居士, 先生自號也, 晦其名顯其號, 其所以自號之意, 具載先生白雲語錄, 家屢空, 火食不續, 居士自怡怡如也, 性放曠無檢, 六合爲隘, 天地爲窄, 嘗以酒自昏, 人有邀之者, 欣然輒造, 徑醉而返, 豈古陶淵明之徒歟, 彈琴飲酒, 以此自遣, 此其錄也, 居士醉而吟, 自作傳, 自作贊, 贊曰, ‘志固在六合之外, 天地所不圍, 將與氣母遊於無何有乎?’”

14) 도연명, <五柳先生傳>,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175쪽, “性嗜酒, 家貧不能常得. …(中略)… 環堵蕭然, 不蔽風日, 短褐穿結, 簞瓢屢空, 晏如也. 常著文章自娛, 頗示己志, 忘懷得失, 以此自終.”

15) 도연명, <五柳先生傳>,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175쪽, “贊曰, ‘黔婁有言, 不戚戚於貧賤, 不汲汲於富貴.’”

16) 도연명, <五柳先生傳>,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175쪽, “極其言, 茲若人之儔乎. 酣觴賦詩, 以樂其志, 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

것이다.

평생 거문고·술·시 세 가지를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三酷好先生이라고 自號하였다. 그러나 거문고 타는 것은 아직 정밀하지 못하고, 시 짓는 것도 잘하지 못하며, 술도 아직 많이 마시지 못하는데, 이 호를 수용한다면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입 벌리고 크게 웃지 않겠는가. 불현듯 고쳐서 ‘白雲居士’라고 하였다. …(중략)… 白雲은 내가 바라는 것이니, 바라면서 그것을 배우면, 비록 그 실상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한 비슷하게 된다. 구름이라는 사물은 계속 넘실거리며 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매여 있지 않으며 동서로 떠다니면서 움직임이 자유롭다. …(중략)… ‘누구를 居士라고 부르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에서 살든지 집에서 살든지 도를 즐기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으니, 나는 집에 살면서 도를 즐기는 사람이다.’¹⁷⁾

<백운거사어록>에서는 거사의 취향과 삶의 자세, 아울러 살아가는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백운거사는 스스로 삼혹호선생으로 부르며 도연명의 취향을 닮고자 한다. 삶의 공간은 세속을 벗어난 산수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설정하고 있다. ‘居家’는 도연명이 말하는 전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백운거사는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생활을 공유하며 ‘태고의 순수한 元氣[氣母]’를 기르고자 한다. 이규보는 <백운거사전>과 <백운거사어록>을 통하여 삶의 전형으로서 도연명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전원생활의 기쁨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

17) 이규보, <白雲居士語錄>, 『동국이상국전집』 권20, 『한국문집총간』 권1, 503쪽, “李叟欲晦名, 思有以代其名者曰, ‘古之人以號代名者多矣. 有就其所居而號之者, 有因其所蓄, 或以其所得之實而號之者.’ …(中略)… 其或陶潛之五柳先生, 鄭熏之七松處士, 歐陽子之六一居士, 皆因其所蓄也. …(中略)… 平生唯酷好琴酒詩三物, 故始自號三酷好先生. 然鼓琴未精, 作詩未工, 飲酒未多而享此號, 則世之聞者, 其不爲噱然大笑耶. 翻然改曰, ‘白雲居士’ …(中略)… 白雲, 吾所慕也, 慕而學之, 則雖不得其實, 亦庶幾矣. 夫雲之爲物也, 溶溶焉洩洩焉, 不滯於山, 不繫於天, 飄飄乎東西, 形迹無所拘也. …(中略)… 或曰, ‘居士之稱何哉’ 曰, ‘或居山或居家, 惟能樂道者而後號之也, 予則居家而樂道者也.’”

〈家君의 별장인 西郊 草堂에서 노닐다〉

春風扇淑氣,	춘풍이 맑은 기운 불어서,
朝日清且美.	아침 해 맑고 아름답네.
駕言往西郊,	수레 타고 서교로 나가니,
脞躓錯如綺.	밭두둑 비단처럼 펼쳐졌네.
土既膏且腴,	땅은 이미 기름지고,
況復醞潭水.	개다가 연못 물까지 흘러 들어가네.
歲收畝千鍾,	해마다 천종의 수확을 하게 되면,
足可釀醇旨.	충분히 맛 좋은 술 빚을 수 있네.
何以度年華,	무슨 이유로 세월을 보내면서,
日日花前醉.	하루하루 꽃 앞에서 취할 것인가.
念此任舐手,	생각하니 이것을 농사꾼들에게 맡기기보다는.
意欲親耘耔.	마음에는 직접 김매고 가꾸었으면 하네.
乘興自忘還,	수레 타고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잊은 채로,
岸幘聊徙倚.	두건을 짓히고 오로지 배회한다네.
遠岫煙蒼茫,	멀리 산봉우리 연기 아득하고,
耀靈迫蒙汜.	석양은 바빠 기울어가네.
月明返田廬,	달 밝으니 농막으로 돌아오고,
醉歌動隣里.	취하여 노래하니 이웃 마을 들썩이네.
快哉農家樂,	좋구나! 농가의 즐거움,
歸田從此始.	전원으로 돌아가는 일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¹⁸⁾

1193년 이규보는 아버지가 마련해 두었던 서교의 초당에서 지내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백운거사를 통하여 보여준 삶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눈 앞에 펼쳐진 농업의 현장을 보고, ‘직접 김매고 가꾸고 싶다는 생각[意欲親耘耔]’는 말을 한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생각도 보여준다. ‘달 밝으니 농막으로 돌아오고, 취하여 노래하니 이웃 마을 들썩이네.[月明返田廬, 醉歌動隣

18) 이규보, <遊家君別業西郊草堂>, 『동국이상국전집』 권2, 『한국문집총간』 권1, 307쪽.

里.]’는 하루 농사일을 마친 뒤, 이웃들과 술 마시고 노래하며 고된 농사일을 잊는 모습이다. 이러한 즐거운 전원의 모습은, ‘전원으로 돌아가는 일 이제부터 시작해야지.[歸田從此始]’라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농경 생활의 묘사와 실천의 의지는 도연명이 전원으로 돌아간 뒤에 자처했던 농부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연명은 <귀전원거(歸田園居)> 다섯 번째 수에서, ‘집에서 갓 익은 술을 거르고, 닭 한 마리로 이웃을 불러 대접하네. 해 저물어 방 어두우니, 땀 나무로 맑은 촛불을 대신하네. 즐겁지만 짧은 밤이 아쉬우니, 이미 다시 날이 새네.[漉我新熟酒, 只雞招近局. 日入室中暗, 蒹薪代明燭. 歡來苦夕短, 已復至天旭.]’라고 하면서, 이웃과 함께 즐기는 삶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규보의 삶의 지향이 현실의 공간을 벗어난 산수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죽림철현을 모방한 죽림고회의 인물들이 현실을 벗어나 청담을 즐겼던 것과는 다른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는 마지막 구에서 귀전(歸田)의 시작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인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 전원으로 돌아오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연명에 대한 인식은 불우했던 구관활동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규보의 전체적인 삶을 조망해 보면, 1207년 임시로 한림원으로 들어갔다가 1208년 권보(權補)를 면할 때까지 출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면을 볼 수 있다. 그는 조정의 유력자에게 구관시를 배울의 형식으로 지어 올리고, 역사에 대한 포핍(褒貶)과 경세의 뜻을 담고 있는 <개원천보영사시>43수를 작시(作詩)하는 등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면서 출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¹⁹⁾ 이러한 과정에서 이규보는 1196년 개경의 환란을 피하여 경상도 상주에 피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1199년 전주사록의 직책을 맡아서 일하

19) 이규보는 <張侍郎自牧一百韻>(『동국이상국전집』 권1), 1197년 12월 6수, 1198년 9수의 구관시를 지었으며, 자신의 처지와 문학적 역량을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개원천보영사시>43수는 개원·천보 연간에 대한 기사를 발췌하여 소개한 뒤, 그 기사에 대한 贊을 7언 절구의 형식을 빌려 기술한 것이다.

였지만, 다음 해인 1200년 탄핵을 당한다. 이 시기 이규보는 구관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는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도연명을 반추한다.

<집서의 해 오월 모일에 황령에 가서 놀려고 막 동문을 나서면서 말 위에서 짓다>

去去指鄉路,	가고 또 가고 고향길을 향하며,
悠悠出國門.	아득히 멀리 도성 문을 출발하네.
離腸輪百轉,	이별의 근심 백번 굴러다닌 수레와 같고,
征淚雨雙翻.	나그네의 눈물 두 줄기 번득이는 빗물과 같네.
綠樹煙猶重,	녹색 나무에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蒼崖日漸暵.	푸른 언덕에 해는 점점 솟아오르네.
喚人鶯舌巧,	사람 부르는 듯 피꼬리 잘도 지저귀고,
送客鳥聲喧.	나그네 보내는 듯 새 소리 시끄럽네.
遠別亂心緒,	이별하며 먼 길 떠나니 심정 어지럽고,
早行餘睡痕.	일찍 길 나서니 잠든 흔적 남았네.
歸驂不可緩,	돌아가는 수레 늦출 수 없으니,
荒草滿陶園.	무성한 풀 도원에 가득하리라. ²⁰⁾

1196년 4월 개경에서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5월에 이규보는 환란을 피하여 황령로 출발한다.²¹⁾ 이번 여정의 목적은 시 제목에서 ‘遊黃驪’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거리감을 헤아릴 수 없는 ‘去去·悠悠’의 첩어와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離腸·征淚·煙猶重·亂心緒·餘睡痕’과 같은 시어는, 不遇한 이규보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고향인 황령을 도원(陶園)으로 설정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정을 시작한다.

20) 이규보, <執徐歲五月日, 將遊黃驪, 初出東門, 馬上有作>, 『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8쪽.

21) 李涵, <年譜>, 『東國李相國全集』 권1, 『韓國文集叢刊』 권1, 286쪽, “四月, 京師亂, 姊夫南流黃驪. 五月, 公携姊氏往焉.”

도원(陶園)은 도연명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兮辭)>에서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의 田園이다. 도연명의 전원은, ‘어린아이 손잡고 방에 들어가니, 술이 항아리에 가득하네[携幼入室, 有酒盈樽], ‘친척들 정다운 이야기에 기분 좋고,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푸네.[悅親戚之情話樂, 樂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 將有事于西疇], ‘동쪽 언덕에 올라서 휘파람 불고, 맑은 냇가에 가서 시를 짓네[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와 같은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규보가 시에서 도연명의 전원을 언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도성을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원의 의미는 무신정권 아래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규보가 잠시 개경을 떠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원’에 대한 생각은 개경을 떠나는 상실의 감정을 위로받고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느낌이 있어서 우연히 시 두 수를 짓다> 2수

拙直由天賦,	졸직함은 타고난 천성이니,
艱難見世情.	힘들고 고생스러워 세상 인정을 알게 되었네.
杜門妨客到,	문을 닫아 손님 오는 것을 막고,
釀酒對妻傾.	술을 빚어 아내와 마주하며 술잔 기울이네.
苔徑少人跡,	이끼 덮인 오솔길 사람 흔적 적고,
松園空鳥聲.	소나무 동산 새소리도 공허하네.
田園歸計晚,	전원으로 돌아가는 계획 늦어지니,
慚愧晉淵明.	진 나라 도연명에게 부끄럽네.
環顧六尺身,	사방을 살펴보면 육 척의 몸뿐이니,
一日能幾食.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는가.
尙營口腹謀,	오히려 구복을 위해 방법 찾으니,

未去雲山碧. 구름 낀 푸른 산에 돌아가지 못하네.²²⁾

이규보는 개경에서 최충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환란을 피하여, 1196년 5월부터 10월까지 남쪽을 유람하고 돌아온다. 그는 당시의 유람을 기억하기 위하여 『강남집(江南集)』을 만든다. 인용한 시는 남유(南遊)를 마치고 일상을 회복한 이후에 지은 것이다. 이규보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조정의 지인들에게 구관시를 지어 올린다. 출사에 대한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시에서는 불우한 처지를 전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보인다.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은 도연명에 투영한다. 지금 상황은 자신의 천성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拙直’의 시어를 사용한다.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서투르다는 것이며, 直은 不義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면을 드러낸다. 그 결과는 세상살이의 간난함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杜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세상살이의 서투른 면은 도연명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연명은 ‘사람들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데, 서투르게 그 살아가는 방법을 잃었네. [人皆盡獲宜, 拙生失其方.]²³⁾’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융통성 있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젊어서부터 세상과 맞지 않았고, 성품은 본래 언덕과 산을 좋아했네. …(중략)… 남쪽 들관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서투른 삶을 지키려고 전원으로 돌아왔네.[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中略)… 開荒南野際, 守拙歸田園]²⁴⁾’라고 하면서, 순박한 삶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온 도연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삶은 부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규보는 세상살이의 서투른 면은 도연명을 통하여 자위(自慰)하고 있다. 전원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도연명의 삶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삶의 방향을 정한다. 첫 번째 수 마지막 연의, ‘전원으로 돌아가는 계획 늦어지니, 진나

22) 이규보, <偶吟二首有感>, 『동국이상국전집』권8, 『한국문집총간』권1, 375쪽.

23) 도연명, <雜詩>12수 중 8수,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120쪽.

24) 도연명, <歸田園居>6수 중 1수,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40쪽.

라 도연명에게 부끄럽네.[田園歸計晚, 慚愧晉淵明.]에서 ‘晚’의 의미는 ‘拙直’한 천성으로 사람들의 긍정적인 시선을 받지 못하여 조정에 진출하는 것이 늦어진다는 의미이다.²⁵⁾ 이규보의 귀진원은 출세를 통하여 관인으로서 생활한 이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의 강한 벼슬에 대한 의욕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두 번째 수에서는 생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규보는 귀진원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口腹’이라고 하였다. 귀진원의 전제 조건은 조정에서 관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전원에서 살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口腹’의 문제는 사인(士人)이 관인으로 일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작용한다.

도연명은 불의한 시대에 관인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가난을 언급하고 있다. <음주(飲酒)>19수에서, ‘옛날 오랫동안 굶주림에 힘들어하다가, 쟁기 던져버리고 벼슬을 찾았네.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추위와 굶주림은 참으로 벗어내지 못하였네.[疇昔苦長飢, 投耒去學仕. 將養不得節, 凍餒固纏已.]’라고 하여 出仕한 이유가 가난으로 인한 가족 부양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귀거래해사>의 서문에도 가난으로 인하여 고을의 관리가 되려 하였고, 다행히 숙부의 추천으로 팽택의 현령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²⁷⁾

25) 이와 관련하여 <又次新賃草屋詩韻>5수 중 5수에서, “寧爲學稼老, 恥作出費郎.”(『동국이상국전집』권10, 『한국문집총간』권1, 398쪽.)이라고 하여 拙直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26) 朴美子(『韓國高麗時代における陶淵明觀』, 百濟社, 2000, 91쪽.) 역시,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전원으로 돌아갈 때가 늦은 것을, 도연명에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빨리 벼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이규보는 <次饋江南友人見寄>의, “無官尚爾歸田晚, 未死何時得暫閑.”(『동국이상국전집』권9, 『한국문집총간』권1, 384쪽.)라고 언급한 내용과 <辛酉五月, 草堂端居無事, 理園掃地之暇, 讀杜詩, 用成都草堂詩韻, 書閑適之樂>5수 중 5수에서, “古來達士貴知微, 田園將蕪何日歸. 莫問纍纍兼若若, 不曾是是况非非.”(『동국이상국전집』권10, 『한국문집총간』권1, 397쪽.)라는 내용을 통하여 벼슬에 미련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7) 도연명, <歸去來兮辭>并序,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中華書局, 1159~161쪽,

이규보는 자신의 천성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체념한다. 또한 그는 구복(口腹)의 문제를 들어서 출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체념은 전원으로 돌아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극복해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복은 관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명분은 도연명의 삶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2) 官人活動 時期

이규보는 1207년 한림원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전환을 맞는다. 그는 1237년 관직에서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조정에서 활동한다. 이 시기에는 1219년 계양 부사로 좌친을 당하고, 1230년에는 위도(狹島)로 귀양 가는 등의 굴곡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대몽 전쟁이라는 실상을 경험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의 고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시 안에 담아 내지는 못하였다. 그는 관인들과의 교류, 개인적인 유람, 일상의 내용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다.²⁸⁾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659수의 작품을 남겼다. 659수의 작품은 30년이라는 관인 활동 기간으로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시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의 문집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도연명이다.

<도잠의 시를 읽다>

吾愛陶淵明,	내가 좋아하는 도연명은,
吐語淡而粹.	하는 말마다 담박하고 순수하네.
常撫無絃琴,	항상 무현금을 어루만졌고,

“余家貧，耕植不足以自給。幼稚盈室，瓶無儲粟，生生所資，未見其術。親故多勸余爲長吏，脫然有懷，求之靡途。…(중략)… 家叔以余貧苦，遂見用於小邑。”

28) 이 시기 이규보의 시세계와 관련한 내용은, 줄고(『仕宦期 李奎報 漢詩에 나타난 內面意識 研究』, 『동아한학연구』1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6, 287쪽.)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其詩一如此	그 시 또한 이와 같았네.
至音本無聲,	지극한 음률 본래 소리가 없으니,
何勞絃上指.	어찌 수고롭게 손을 줄에 올리겠나.
至言本無文,	지극한 말은 본래 문자가 없으니,
安事彫鑿費.	어찌 문장을 수식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겠나.
平和出天然,	평화로운 말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고,
久嚼知醇味.	오래도록 맛봐야 좋은 술맛을 알게 되네.
解印歸田園,	벼슬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
逍遙三徑裏.	三徑 안에서逍遙하였네.
無酒亦從人,	술이 없으면 또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
顏然日日醉.	날마다 취하여 쓰러져 있었네.
一榻臥羲皇,	한 평상에 회황이 누워있는 듯하고,
清風颯然至.	맑은 바람 스산하게 부네.
熙熙大古民,	감화하여 和樂한 태고의 백성이고,
岌岌卓行士.	높은 고상한 품행의 선비네.
讀詩想見人,	시 읽고 사람을 생각해 보면,
千載仰高義.	천년의 바르고 높은 도리 우러르게 하네. ²⁹⁾

이 시는 1215년 7월 우정언지제고(右正言知制誥)를 제수받고 지은 <초배정 언유작(初拜正言有作)> 앞에 편차하고 있다. 그동안 이규보는 하급 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연명의 시를 읽고 생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규보는 도연명의 시를 읽고, 그의 詩語를 통하여 표현한 세계에 감복 받았다. 도연명의 시어는 ‘淡泊’하다고 하였으며, 평소에는 무현금을 다루고, 그가 관인 생활을 하다가 미련 없이 ‘歸田園’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도연명의 모습은 태평성대의 치세를 유지했던 회황(羲皇)의 백성처럼 감화를 받은 ‘和樂’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규보는 우정언지제고를 제수받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급 관리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특별하게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29) 이규보, <讀陶潛詩>, 『동국이상국후집』 권14, 『한국문집총간』 권1, 439쪽.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관인이 된 것에 만족하면서 관인들과의 교류, 개인적인 유람,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1212년 진강후 최충현은 야연(夜宴)을 베풀면서 고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8품에 지나지 않았던 이규보를 참석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시제에 40운의 시를 지어 올렸고, 7품의 사재승(司宰丞)을 제수받는다. 최충현과 이인로는 참관직(參官職)에 제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이 그렇다는 이규보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또한 1213년 최충현에게 참직을 바라는 시를 지어 올리는데, 이것은 주변의 권유에 마지못해 올린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최충현은, ‘이 사람은 뜻이 높은 자라서, 품계 올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 아마도 잠시 뜻을 굽혀서 말한 것일 뿐이다.[此子志高者也, 應不以階梯爲望, 權屈而言之耳]’라고 하였다.³⁰⁾

<도잠의 시를 읽다>의 시는 ‘正言’의 직책을 받기 전에 쓴 것으로, 관인 생활도 욕심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212년 천우참군(天牛參軍)이 되어 설날 조회를 마치고 나오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설날 조회에서 돌아와 느낌이 있어서 짓다. 이때 千牛參軍이 되었다.> 2수

久貪名利夢方酣, 오랫동안名利를 쫓다 꿈에 바로 취해서,
未去田園面自慙. 아직 전원으로 가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네.
白首猶居百寮尾, 白首에도 오히려 백관들 뒤에 자리하고 있으니,
藍衫木笏趁朝參. 미관의 몸으로 靑衫에 木笏 차림으로 조회에 참석하네.

30) 李涵, <年譜>, 『東國李相國全集』 권1, 『韓國文集叢刊』 권1, 289쪽, “癸酉, 十二月, 晉康侯嗣子相國, 大設夜宴, 召搢紳貴介赴座, 公獨以八品微官蒙召預焉…(中略)… 因使李仁老唱韻, 多至四十餘韻, 以獨爲題, 命名歧研墨, 及成, 相國大嗟賞不已…(中略)… 及欲退, 侯曰, ‘子若望官, 卽言所志’ 公曰, ‘吾今八品, 除七品則足矣.’ 相國矚目之, 意欲令直望參官. 其日相國還第, 召讓曰, 子之望官何劣也, 何不以參官爲望耶.’ 公曰, 予志也.’ 及十二月頒政, 越七品除司宰丞. …(中略)… 乙亥貞祐三年公年四十八. 夏六月, 公作詩求參職階梯, 晉康侯將其詩出示其府典籤宋尙曰, ‘此子志高者也, 應不以階梯爲望, 權屈而言之耳, 若奏直除參官, 則想其志謂何也.’ 尙曰, ‘然則其喜不可言, 亦衆望也.’ 及下批, 爲右正言知制誥. 七月, 作初拜正言詩.”

冷鞍敲鐙着鞭忙, 차가운 안장에 등자 두드리고 채찍질하면서 급히 가며,
 雙闕相望尚杳茫. 대궐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네.
 長嘯歸田應不餒, 길게 휘파람 불면서 전원(田園)에 돌아가도 굶지 않으리니,
 一年耕得一年糧. 일 년 농사지어 일 년 양식 얻을 수 있겠네.³¹⁾

이 시는 『동국이상국후집』 권1에 수록하고 있어서 시기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사환기 시에 해당한다. 권1은 기존에 기재하지 못한 시를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규보는 늦은 나이에 한림원으로 들어가서 관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첫째 수의 ‘오랫동안 명리를 쫓다 꿈에서 바로 취했다.[久貪名利夢方酣]’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하겠다. 시에서는 ‘白首’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나이를 직접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늦은 나이에 미관말직으로 조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수에서는 설날 아침 해 뜨기도 전에 궁궐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복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연명이 관인 생활을 시작한 것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규보 역시 구관활동 시기 구복의 문제를 들면서 관인이 되어야 하는 명분을 말하였다. ‘不餒’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한 상황을 말하고, 귀전원을 해도 무방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으로 관직은 더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낮은 지위에 있는 것과 현실적인 나이에 체념한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념은 名利에 대한 욕심에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규보가 고관들이 참석하는 연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문재(文才)를 인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충헌의 호의에 자신의 마음을 낮춰서 말한 것에 대하여, ‘나의 뜻이다.[予志]’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뜻을 <도잠의 시를 읽다>와 <설날 조회에서 돌아와 느낌이 있어서 짓다> 2수를 통하여 확인하게 한다. 그는 관인 생활을

31) 이규보, <元日朝會, 退來有感. 時爲千牛參軍>, 『동국이상국후집』 권1, 『한국문집총간』 권2, 138쪽.

하면서 도연명의 생활과 삶의 자세에 대하여 심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잡에 대한 찬> 병서

나는 陶淵明의 本傳과 詩集을 읽고 그 너그럽고 구애받지 않는 성격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찬을 짓는다.[予讀淵明本傳及詩集, 愛其曠達. 故贊之云.]

無絃琴上,	줄이 없는 거문고 위,
怡怡其心.	그 마음 매우 기쁘네.
人曰無絃,	사람들이, '줄이 없으면,
不如無琴.	거문고가 없는 것보다 못하며,
有琴無絃,	거문고만 있고 줄이 없으면,
安有厥音.	어디에 그 소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네.
若曰寓意,	만약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면,
凡物皆是.	모든 사물이 다 그러하네.
淵明嗜酒,	연명은 술을 즐겨서,
惟日以醉.	날마다 취해 있었네.
有杯無酒,	술잔만 있고 술이 없는데,
其可醉止.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達士之趣,	식견이 높은 선비의 趣旨를,
人豈易會.	사람들이 어찌 쉽게 알겠는가.
所攝者內,	유지할 것은 안에 있는 것이고,
可遺者外.	버려야 할 것은 밖의 것이네.
苟慕於外,	진실로 밖에 있는 것을 따르면,
惟慾之漸.	욕심이 나기 시작할 뿐이네.
豈獨絃耳,	어찌 유독 거문고 줄 뿐이겠는가,
需索莫狀.	여기저기 요구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네.
苟遺其內,	진실로 그 안의 것을 버리면,
短折之招.	夭折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네
眞人鍊丹,	眞人の 鍊丹은,
長生是邀.	長生을 바라는 것이네.

酒亦神藥,	술 또한 神藥이니,
不飲病隨.	마시지 못하면 병이 나네.
絃寧可忘,	거문고의 줄을 잊을 수 있을지언정,
酒不可離.	술을 끊지 못하겠네. ³²⁾

위에 인용한 贊은 도연명의 본전(本傳)과 시집(詩集)을 읽은 뒤에 지은 것이다. 찬을 지은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독도잠시(讀陶潛詩)>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규보는 贊에서 도연명의 ‘無絃琴’과 ‘飲酒’에 대하여 언급하고, 자신의 삶에서 ‘飲酒’는 끊지 못하겠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여기에서 이규보는 줄이 없는 거문고의 음률을 즐기고, 술잔이 없어도 취하는 경지에 이른 도연명을 주목하여 말한다.

소통(蕭統)의 <도정절전(陶靖節傳)>에는, ‘도잠은 음률을 알지 못하면서 현이 없는 거문고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술이 적당해지면, 거문고를 어루만졌으니, 그 마음을 의탁할 뿐이었다.[淵明不解音律, 而蓄無絃琴一張, 每酒適, 輒撫弄以寄其意.]’라는 기록이 있다.³³⁾ ‘素琴’ 혹은 ‘無絃琴’과 관련한 기록은, 대부분 도연명이 거문고를 연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거문고를 연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문고를 통하여 자취를 이룬다는 말이다. ‘술잔만 있고 술이 없는데,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有杯無酒, 其可醉止.]’라고 하는 이규보의 말 역시, 도연명이 술을 통하여 자신의 취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술은 관인 생활이든 전원생활이든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수단이며, 불의한 시대에 자신의 뜻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고려한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잠찬(陶潛贊)>에서 이규보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맹자(孟子)」에서 말하는 ‘浩然之氣’라고 할 수 있다. 마음 밖은 세속의 영리를 말하고, 이러한 외부에 마음을 집중하는 경우 夭折하게 된다는 순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거문고의 줄은

32) 이규보, 『陶潛贊』并序, 『동국이상국전집』 권19, 『한국문집총간』 권1, 492쪽.

33) 蕭統, <陶靖節傳>,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9쪽.

잊을 수 있지만, 술은 끊을 수 없다.[絃寧可忘, 酒不可離.]고 말한다. 술은 도연명이 말한 것처럼 忘憂物이다.³⁴⁾ 소통의 「도연명집서(陶淵明集序)」에는, ‘어떠한 사람은 도연명의 시편마다 모두 술이 있다고 의심하는데, 내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 뜻이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낼 뿐이다.[有疑陶淵明詩篇篇有酒, 吾觀其意不在酒, 亦寄酒爲迹者也.]’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술은 과음하여 주정하면서 수명을 재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규보와 도연명은 술을 통하여 삶을 즐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일을 초월하고자 하려는 의식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생활의 가능 여부는 자신의 본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규보는 관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도연명의 본전과 시집을 읽으면서 <백운거사전>과 <백운거사어록>에서 언급한 삶의 지향을 되새기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명리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규보는 1237년 12월 18일 걸퇴(乞退)에 대한 윤험을 받고, 12월 29일 정기 인사에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로 치사(致仕)한다. 중세 문인에게 致仕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다. 30년의 관인 생활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방직을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남쪽의 위도로 귀양을 갔었다. 이러한 관인 생활의 굴곡에도 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名利와 거리를 두며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도연명이 살아온 과정을 되새기며, 그가 지녔던 삶의 지향을 본받으려는 자세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3) 致仕以後 時期

이규보는 1237년 겨울 4번의 「걸퇴표(乞退表)」를 올리고 윤험을 받아 치사한다. 그는 치사한 이후에 ‘南軒’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南軒居士’ 혹은 ‘南軒長老’라고 부르며 생활을 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몽고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퇴직했지만, 고려에서는 대몽 외교문서 작성을

34) 도연명, <飲酒>20수 중 7수,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90쪽.

요청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대외적인 상황은 그의 행동을 제약하기는 했지만, 관인으로서 지위와 책임을 내려놓았다는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즐기려고 노력했다. 치사 이후 이규보는 ‘남軒’을 통하여 보는 사물에 관심을 가졌고, 문생 및 퇴직한 관료들과 교유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그의 생활 자세이다.

나이가 되어 퇴직을 청하니, 나라의 중요 사무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이 어찌 평상시 바람이겠습니까. …(중략)… 앞드려 생각해 보건대, 신은 事理에 밝지 못하여, 오직 孤拙함을 지켰을 뿐인데, 예전 벼슬길이 막혔을 때는, 구렁텅이에 빠진 듯하였는데, 성조를 만나서, 바람을 타고 오르는 듯 승승장구하였습니다.³⁵⁾

이규보는 정유년(1237년) 두 번째 걸퇴표를 올린다. 걸퇴표는 관인의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낸다. 중세에는 나이 70을 기준으로 관인의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기에서 자신이 관인 생활을 하면서 지켜온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孤拙’이다.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살이의 서투른 것을 말한다. 구관 활동 시기에 지은 <우음이수유감(偶吟二首有感)>에서, ‘졸직함은 타고난 천성이다.[拙直由天賦]’라고 하여,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관인 활동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마음 밖의 영역인 名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치사 이후 그는 ‘南軒’이라는 자신만의 田園을 설정하여 천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도연명이 <귀전원거> 첫 번째 수의, ‘젊어서부터 세상과 맞지 않았고, 성품은 본래 언덕과 산을 좋아했네. …(중략)… 남쪽에서 들판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서투른 삶을 지키려고 전원으로 돌아왔네.[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中略)… 開荒南野際, 守拙歸田園]’라고

35) 이규보, <丁酉年乞退表>, 『동국이상국전집』 권31, 『한국문집총간』 권2, 30쪽, “年當乞退, 望解機務者. 老而不退, 是豈出於夙心. …(中略)… 伏念臣動昧機宜, 唯守孤拙, 曾淹宦路, 若推壑以下之, 及邁聖朝, 類搏風而上者.”

한 것처럼, “守拙”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남헌에서 손님을 물리치다>

昔爲丞相備開閣, 예전 승상이었을 때 開閣을 싫어하더니,
退作閑人又杜門. 물러나 閑人되니 다시 문을 닫았네.
公不迎賢私屏客, 공직에서 현인을 맞이하지 않고 물러나서는 손님 물리치니,
釀成孤拙是南軒. 孤拙함을 이루는 南軒이네.³⁶⁾

위 시는 ‘남헌’에서 자신의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치사한 이후 현재의 삶을 보면서 읊은 것이다.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면서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나 사람들을 굳이 불러서 만나지 않았음을 말한다. ‘開閣’은 한나라 공손홍이 재상이 된 이후에, 객관을 지어서 동쪽의 문[東閣]을 열어 놓고 현인을 맞아 함께 나라의 일을 논의한 고사를 말한다.³⁷⁾ 여기에서 이규보가 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치사한 이후 閑人이 되어도 버릴 수 없어서 ‘杜門’했다고 하였다. ‘공직에서 현인을 맞이하지 않고 물러나서는 손님 물리친다.[公不迎賢私屏客]’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행동을 종합한 것이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孤拙’하다고 하였다. ‘孤’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명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천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이규보는 ‘남헌’에서 ‘孤拙’을 지켜나갔다.

<세 가지 물건을 다 물리치려고 하였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시를 지어 스스로 분발하다> 병서

무릇 잘하는 것이 아닌데도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꼭

36) 이규보, <南軒屏客>, 『동국이상국후집』 권2, 『한국문집총간』 권2, 146쪽.

37) 班固, 『漢書·公孫弘傳』, “起客館, 開東閣以延賢人, 與參謀議”

맞다. 나와 같은 사람은 거문고 숨씨도 서투르고, 술 마시는 배포도 크지 못하고, 책은 늘그막에 물리칠 만한 것인데, 여전히 이 세 가지를 즐기는 것은,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닌가. 그 道에 있어서는 멀어지는 것이니, 때마침 물리치는 뜻이 있었기에, 이 시를 짓는 이유이다.[夫非所長而嗜之, 適爲人笑. 若予者, 琴手澁, 酒膽劣, 書則老境所可屏者, 而猶嗜此三者, 不亦惑乎. 其於道也遠矣, 方有屏之之意, 故作此詩云爾.]

琴橫膝上書置前,
弄得數聲看數字.
時復酌數盃,
不覺頽然醉.
書特萬篇蠹簡之煩言,
琴酒三尺枯桐之虛器.

若循輪扁語,
糟粕不必嗜.
若得陶潛趣,
何勞絃上指.
唯此飲中事,
欲捨未遽已.
醇則適其口,
醜則拂其意.
是亦由吾道未全,
苟全於道何有是.
天下無正味,
食薦甘帶孰定美.
嗟夫三物者,
適爲心之累.

거문고는 무릎에 걸치고 책은 앞에 놓고서는,
두서너 곡조 타고 몇 글자 보네.
가끔 술 두서너 잔 마시면,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취해 있네.
책은 좀이 먹어 훼손된 만 편의 도움 되지 않는 말
이고,
거문고는 바로 석자의 오동나무로 만든 쓸모없는
물건이네.
輪扁의 말을 따른다면.
찌꺼기와 같은 것이니 즐길 필요가 없네.
도잠의 정취를 얻는다면,
번거롭게 거문고 줄 튕기겠는가.
오직 이 술 마시는 일만은,
버리고 싶지만 갑자기 그럴 수는 없네.
진한 술은 입에 적당하고,
삼삼한 술은 마음에 맞지 않네.
이 또한 나의 道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진실로 道가 온전하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천하에 올바른 맛이 없어,
풀을 뜯어 먹고 뱀을 달게 먹으니 누가 올바른 맛
을 정하는가.
아 이 세 가지는,
마음의 허물이 되기에 적당하네.

安得揚相遺然後, 어떻게 이를 모두 버린 이후에,
庶幾蹈道忘懷之君子. 올바른 道를 실행하는 忘懷의 군자에 가까워질까.³⁸⁾

도연명은 자전인 <오류선생전>에서, ‘마음속에서 이해득실을 잊었고, 스스로 일생을 마쳤다[忘懷得失, 以此自終]’라고 하였다. 오류선생은 영리와 세속에서의 이해와 득실을 잊은 채로 살았고, 이것을 간직한 채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규보는 도연명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그의 경지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는 독서와 음주, 탄금(彈琴)의 세 가지를 ‘버리다[遺]’와 ‘물리치다[屏]’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치사 이후 자신의 생활에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독서와 음주, 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서문에서는 ‘무릇 잘하는 것이 아닌데도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꼭 맞다.[夫非所長而嗜之, 適爲人笑.]’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謙辭이다.

도연명이 오류선생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이상적인 은둔자의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선생이 ‘독서를 즐겼지만, 이해하려고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好讀書, 不求甚解]’라거나, ‘술 마시고 시를 지으며 그 뜻을 즐겼다.[酣觴賦詩, 以樂其志.]’라는 모습은 은둔자의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즐기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목적이나 가치를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규보는 세속의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은둔자가 아니라 한적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일상에 필요한 독서·음주·탄금을 버리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다. ‘도잠의 정취를 얻는다.[若得陶潛趣]’는 책을 읽거나 거문고를 연주하고 술을 마셔서 취하는 실상을 넘어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취를 말한다.

이규보는 ‘오직 이 술 마시는 일만은, 버리고 싶지만 갑자기 그럴 수는 없네.[唯此飲中事, 欲捨未遽已.]’라고 하여 음주는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도연명의 말하는 ‘道’의 경지는 ‘飲酒’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38) 이규보, <欲屏三物, 今未爾, 先以詩自激>并序, 『동국이상국후집』 권5, 『한국문집총간』 권2, 183쪽.

다. 책과 거문고는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내·외적 환경에 의하여 찾아오는 마음의不平은 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에 대하여 ‘忘’이 아니라, ‘屏’ 혹은 ‘遺’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그가 인생 晩年에 지향한 삶의 한 측면은, 도연명이 추구했던 ‘忘懷得失’의 경지임을 짐작하게 한다.

3. 결론

본고는 이규보가, 전 생애에 걸쳐, 도연명을 어떻게 인식하여 삶의 지향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생애는 ‘구관 활동 시기·관인 활동 시기·치사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도연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규보와 도연명은 한소(寒素) 사인(士人)이라는 출신의 유사성이 있으며, 문벌과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한계가 명확하였다. 또한 고려는 무신들에 의하여 조정이 움직이는 시대였고, 晉·宋 교체기는 군벌 세력의 등장으로 황제가 시해당하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양자(兩者)는 신분과 시대의 유사성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天性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규보는 도연명을 삶의 전형으로 삼아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연명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다.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부단히 구관(求官)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도연명이 그랬던 것처럼 출사의 명분으로 ‘口腹’의 문제를 거론하고, ‘歸田園’은 조정에 진출하여 관인으로서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명분은 구관의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 이규보는 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연명의 본전(本傳)과 시집(詩集)을 읽은 뒤, 생각을 정리하여 시와 찬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즐직한 천성을 유지하고 되새기기 위하여 도연명을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자세는 名利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이규보는 1237년 겨울 4번의 <결퇴표(乞退表)>를 올리고 윤희를 받아 치사(致仕)한다. 그는 치사한 이후에 ‘南軒’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南軒居士’ 혹은 ‘南軒長老’라고 부르며 생활한다. 그는 ‘남헌’이라는 자신만의 전원에서, ‘孤拙’의 천성을 유지하며 ‘守拙’하고자 하였다.

이규보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拙’이라고 할 수 있으며, ‘拙直’과 ‘孤拙’이라는 말로 자신의 천성과 삶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도연명이 추구한 삶의 자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세 문인에게 도연명은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규보가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가 삶의 전환점마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도연명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연명의 삶에 다가서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도연명, 『新譯 陶淵明集』, 溫洪隆 注譯, 三民書局, 2004.
 _____, 『陶淵明集』, 逮欽立 校注, 中華書局, 2007.
 _____, 『陶淵明全集』上·下, 松枝茂夫·和田武司 譯注, 巖波書店, 2012.
 _____, 『도연명 전집』, 이치수 역주, 문학과지성사, 2015.
 李奎報, 『國譯 東國李相國集』,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80.
 _____, 『東國李相國全集·後集』, 『韓國文集叢刊』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_____, 『東國李相國集』상·하, 조선고서간행회, 1913.
 鄭麟趾 外, 『高麗史』
 鄭麟趾 外, 『신편 고려사』, 고전연구실 옮김, 신서원, 2001.

<단행본>

- 김진영, 『이규보문학연구』, 집문당, 1984.
 김창환,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을유문화사, 2009.
 李錦全, 『도잠평전』, 장세후 역, 연암서가, 2020.
 朴美子, 『韓國高麗時代における陶淵明觀』, 百濟社, 2000.
 斯波六郎, 『중국문학 속의 고독감』, 윤수영 역, 동문선, 1992.
 小尾郊一, 『중국의 은둔사상』, 윤수영 역,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신용호, 『李奎報의 意識世界와 文學論 研究』, 국학자료원, 1990.
 安藤信廣·堀池信夫·大上正美 편저, 『陶淵明 詩と酒と田園』, 東方書店, 2006.
 袁行沛, 『도연명 연구』, 박종혁 등 공역, 학고방, 2017.
 이동철, 『白雲 李奎報 詩의 研究』, 국학자료원, 1994.
 張 煒, 『도연명의 유산』, 조성환 역, 파람북, 2021.
 錢志熙, 『도연명전』, 이규일 역, 글항아리, 2015.
 川合康三, 『중국의 자전문학』, 심경호 역, 소명출판, 2002.
- 김성기, 「高麗中期 文人의 挑淵明 受容에 대한 考察」, 『울산어문논집』3, 1987, 79~105쪽.
 김주순, 「李奎報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35, 동방한문학회, 2008, 215~253쪽.

(UCI : G704-000973.2008..35.001)

박성규, 「李奎報 漢詩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2.

서양명, 「고려 무신정권시기 도연명 문학의 수용양상 연구 : 이인로, 이규보, 진화를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논문, 2018.

이희영, 「강남 유람이후 이규보 한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32집,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6, 237~272쪽.

(UCI : G704-SER000002284.2016.32..001)

_____, 「仕宦期 李奎報 漢詩에 나타난 內面意識 研究」, 『동아한학연구』1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6, 285~328쪽.

_____, 「李奎報 排律研究(1) : 求官活動 時期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0,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8, 479~511쪽.

_____, 「李奎報 排律研究(2) : 官人活動 時期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8,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20, 215~241쪽.

_____, 「李奎報 排律研究(3) : 致仕 以後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54,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21, 255~284쪽.

_____, 「이규보 『강남집』 연구」, 『우리어문연구』53, 우리어문학회, 2015, 295~331쪽.

(UCI : G704-001387.2015..53.011)

_____, 「이규보의 강남 유람이전 한시 연구」, 『동양고전연구』59, 동양고전학회, 2015, 33~56쪽.

(UCI : G704-001739.2015..59.008)

| Abstract |

A Study on Lee Gyu-Bo's Perceptions of Tao Yuanming

Lee, Hee-young
Sangmyung Univ. Prof.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how Lee Gyu-bo perceived Tao Yuanming throughout his life and how his life was oriented to him. His perceptions of Tao Yuanming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three periods of his life including the "period of activities to seek a government post," "period of activities as a government official," and "period after his resignation."

Lee made constant efforts to seek a government post before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Like Tao Yuanming, he discussed the "living" issue as his cause of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and stated that he could "return to the country" after entering the royal court and ending his life as a government official. This cause was the driving force for him to endure the difficult process of seeking a government post.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he read Tao Yuanming's biographies and anthologies, sorted out his thoughts, and wrote poems and Chans. He thought of Tao Yuanming to keep and ruminate on his strait-laced nature. This life attitude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him to keep certain distance from fame and wealth. In the winter of 1237, he submitted a "Geoltoipyo" four times and resigned after royal permission.

After resignation, he created a space called "Namheon" and called himself

"Namheon Geosa" or "Namheon Jangro." He tried to maintain his "Gojol" nature and achieve "Sujol" in his own country of "Namheon."

His life attitude penetrating into his entire life can be summed into "Jol." He exhibited the loneliness that he felt in his life as well as his nature through "strait-laced" and "Gojol." This aspect of his life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life attitude pursued by Tao Yuanming. Since Tao Yuanming was an established model for medieval literary figures,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Lee's efforts to emulate his life. There is, however, no denying that he was aware of Tao Yuanming through his specific works at every turning point of his life and made efforts to resemble his life.

Key words : Lee Gyu-bo(李奎報), Tao Yuanming(陶淵明), Chinese poem(漢詩), strait-laced(拙直), the country(田園)